

봉 축 사 설

5월 7일은 부처님 오신 날. 꽃의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다. 민산에 아롱진 꽃자수와 향내을 속에 기쁨에 넘친 새들이 歡喜樂樂한다. 밤거리는 슬프건 기쁘건, 잘살거나 못살거나, 고귀한 이 못난 이, 할 것 없이 어둠을 쫓는 등불을 밝히고 있다. 가로에 늘어선 등불을 바라보노라면 우리의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에 고개 숙이면서도 그 가르침을 한갓 지식으로 장식하고만 못한 제자들을 슬프게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적정의 세계에 들어 가신지 어언 2539년. 누구나 어두운 마음에 불을 켜면 깨달은 사람이 된다고 선언하신 그분의 참다운 정신을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반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삼으리라. 정병 보살의 삶을 보여 주리라. 기림과 일체의 중생을 건지리라"

고 결연히 존재의 의의를 설파하신 분. 맹목적인 삶의 의지를 보살의 삶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광생을 교화에 몸바친 위대한 교육자. 인간을 구원해 주는 것은 외부의 절대자가 아니라 내면의 자기 주인공을 깨닫는 것이라며 관념적 우상을 타파하신 초절현 종교가...

은 누리가 기쁨과 희망 속에 약동하는 꽃의 축제로 맞이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절대적 가치를 평등하게 바라보며, '더불어 사는 삶의 미래'를 가르쳐 주시고, 인간이 결

코 집승이 될 수 없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이 오신 날을 머리 속에 찬탄하지 않을 수 없는 소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주변은 결코 기쁨과 희망으로 들떠 있지 않다. 약육강식의 생존논리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의 범람 속에 방황하고 있다. 개방 내지 세계화란 미명 아래 인간의 존엄

폭력 등의 풍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가족운리의 부재로 존속살인 내지 상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들은 전통의 가치에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서구모방적 세태를 만들어 가치의 혼란 속에 방황하고 있다. 그동안 기성세대들이 잘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오직 물질만을 추구하는데 관심을 집중하는 사이 어느덧 청소년의 문화적 정서가

국가의 미래, 인류의 장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도 답답하기만 한 것은 한국의 부처님 제자들이 청소년 교화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이다. 사찰에 청소년이 오도록 계몽하기는 커녕 오는 것을 귀찮아 한다는 조사가 있다. 우선 먹기는 곳감이 달기 때문이다.

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일군의 제자들이 생기자 단상을 따라 다니지 말고, 우매한 중생들을 깨우치도록 '길 떠나라'는 당부 하셨다. "인간과 하늘의 이익을 위해 떠나라. 한 길로 두명이 가지 마라.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착해야 한다..."라는 전도선언이 그것이다. 부처님의 제자는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요 민중을 깨우치는 횃불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불기 2539년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전도선언을 한다면 그것은 청소년 교화에 힘쓰라는 청소년 헌장이 될 것이다. '청소년은 이 사회의 지광이다. 미래를 가능케하는 척도다. 따라서 이 사회와 백성을 위해 청소년을 교화하라.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착해야 한다.'

금년 부처님 오신 날 정국에 밝힌 모든 등불은 청소년들의 가슴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도록 기원하는 등불이 되길 앙망한다. 나무석가모니불.

청소년 가슴에 부처님 말씀 심자

성을 파괴하는 극적병력의 퇴폐문화가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다. 최근 각 언론조사기관에선 청소년들의 생활현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속속 발표할 바 있다. 그것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서가 매우 불안한 상태를 알 수 있다. 사회운리의 마비로 인한 성도덕의 문란, 공동체 의식의 결여, 생명의 경시, 마약, 절도,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이다. 금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바람이 있다면 부처님의 사랑스럽고 자애하신 손과 눈길이 청소년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기성과 함께 들날이를 나뉘다 방향하면 '야사'란 청소년을 교화했던 그 덕화가 오늘 다시 피어오르길 바라는 것이다. 청소년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척도이자

필요성도 불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예전에 바탕한 공경심의 표명으로 자연스럽게 악업을 멀리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회를 이끄는 힘이기 때문이다.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평등성과 존엄성을 지니라고 가르쳤다. 불사는 단순한 성적 도덕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존귀성을 일깨운 것이다.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지양하고 청정하고 밝은 지혜를 증득하는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불자가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대담도 커다란 설득력을 갖는다.

불살생의 계율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산 목숨을 죽이는 데 저생할(늑시, 사냥)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방생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화합은 부처님께서 말씀한 대중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본연의 사회에서 화합의 사회를 꿈꾸는 불제자는 항상 '하심의 자세'로 남의 허물을 감추며 화합의 증생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은 중년층에서 많이 나왔다.

끝으로 집착하지 않는 마음과 인간의 상심성의 가치기준인 불무도의 계를 지키기 위해 '무소유의 생활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 불자도 있었다.

이번 질문에서 불자들은 오기에 입각한 보다 실천적인 규율들을 삼속에 융해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계행이나 청규는 생활을 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제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행동의 가치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생활에서는 계율자체가 통한 시된 계 현실이기도 하다. 계행이 피안을 향하여 가는 첫걸음이라고 볼 때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명감 또한 매우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불자들의 인식이다.

부 처 님 은 인간을

작은 실천이 '큰 세상' 만든다

불자 108명이 말하는 생활청규

'내눈에 보이는 모든것은 부처야님이 없고 내 행위 하나 하나가 기도요 정진이다. 생활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자'

불자들은 생활속에서 어떠한 덕목을 가장 중요한 생활청규로 삼고 있을까?

본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지역 재가불자 108명에게 '불자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청규는 어떤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자유롭게 응답한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1일선(21.3%)을 생활청규의 으뜸으로 삼았고 자비(13%), 질서(10.1%), 검소(9.2%), 불방어(8.4%), 예절과 공경(8.3%), 기도(7.4%)등의 순으로 꼽았다. 이밖에 도 불사음(4.7%), 불살생(4.6%), 화합(3.7%), 불무도(3.7%)를 실천덕목으로 여긴다고 응답했다.

부처님 가르침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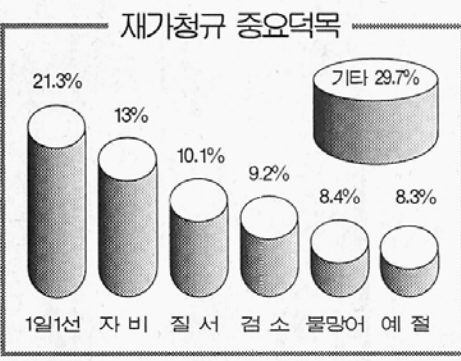
이번조사의 결과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행동이 우선으로 꼽힌 것은 불자들이 스스로의 생활에 있어서 부처님 말씀을 행동화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실천행이 없는 불교는 부

리없는 나무일 뿐이다. 믿음과 실천이 함께할 때 예토에 뿌리를 두고 피어난 연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래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며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상도 기억할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나와 내가 모든것을 조건없이 나누어 가지는 자비는 반드시 지켜야할 청규라는 대답이 상당수 나왔다.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고 타인을 위하는 부처님의 자리아타 정신에 입

각하여 남을 먼저 생각하고는 것이 응답자들이 내놓은 실천방안이다. 또 질서지키기를 청규로 생각한다는 것은 불자들의 질서외식이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잘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회를 처음 나온 초심자였을 때 사찰과 법당안에서 제대로 지켜지지않는 질서외식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신발하나도 가지런히 놓았던 불가의 대중생활의 규율을 재가불자들의 생활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초월하여 지족의

질서·검소·거짓말 안기 등 계행 삼아 '1일 1선 생활화' 탐욕 버리기 노력



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을 위한 마음가짐을 견지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계율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부 처 님 은 인간을



생활 속의 불교 25

“ 오늘 같이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뜻은 ”

불 기 2539년. 까마득한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잠시 몸을 나투셨지만 부처님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투신 모습, 장소가 다를 뿐 부처님은 오시지도 않았고 가시지도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오늘에 항상 함께 하신다. 과거·현재·미래가 따로 없다.

은 일체 유·무정물이 있는 곳에 부처님은 계신다.

그러나 부처님이 있다고 하면 부



처님은 없는 것이다. 일체를 포함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기에 부처라고 한 것이다. 옛 선사들이 부처를 똥 막대기라 했고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겠다고 한 것도 개별적인 대 상으로 보는 견해를 부수고자 한 때 문이다.

부모가 위대한 것도 자녀를 위해 모든 힘과 정성, 심지어 생명까지도

던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 부모가 높기만 하겠는가.

부 처 님 은 인간을

협찬: 허연자
부산시 중구 창선동 2가 동부백화점